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생동차 비법 비경영 합격수기

#전업 수험생#대학생 및 휴학생#인터넷 강의#성실성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0기] 학기 병행으로 노동법만 제때 수강하여 생략 [1기] 1. 노동 & 행정: 전날 복습 -> 일일테스트 or 모의고사 -> 강의 시청 -> 교재 읽으며 복습 -> 전체 암기 -> 사례집 3~5문제 풀이 -> 일일테스트 or 모의고사 범위만 다시 복습 -> (아직 0기를 못 끝낸 상태여서 다음 과목 0기 강의 시청 -> 교재 읽으며 복습 -> 주요쟁점만 암기 2. 인사 & 경조: 전날 복습 -> 일일테스트 -> 강의 시청 -> 교재 읽으며 복습 -> 전체 암기 -> (아직 0기를 못 끝낸 상태여서 다음 과목 0기 강의 시청 -> 교재 읽으며 복습) [2기] 1차 시험 준비로 노동 & 행정만 수강했습니다. 노동 행정 교대로 하루씩 "전날 복습 -> 모의고사 -> 강의 시청 -> 교재 회독하며 복습 + 암기 -> 사례집 2~4문제 풀이 -> 다음 과목 모의고사 준비" 스케줄로 빠르게 끝냈습니다. [3기] 노동법만 수강했습니다. 일주일간 1회독으로 시작해서 3주 차부터 회독 수를 늘렸습니다. 시험 전에는 1일 1회독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브노트로만 하기에는 속도가 충분히 붙지는 않아서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나누어 하루는 서브노트 하루는 핵서포(김에스더 선생님 자료)로 번갈아가며 회독했습니다. [동차반] 인사 & 경조: 1차 준비로 2기를 수강하지 못 하여 바로 3기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껴 동차반을 빠르게 수강하며 회독수를 늘리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험까지 6주 남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5회독(전 범위 현출 2회 포함)을 목표로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1 차 시험> 1 차는 깊은 이해보다는 많은 내용을 눈에 빨리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과목별로 단권화 책을 하나씩 정해서 무한회독 했습니다. 빠른 회독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1) 형광펜 활용 2) 도표 활용이었습니다. 1) 형광펜은 문장 전체를 하나로 긋지 않고 지문에서 바뀌서 널법한 단어에만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ex 숫자 등). 2)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도표를 그렸습니다(ex

사회보험법에서 각 법의 공통내용 비교). 단권화를 위해 사용한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 김에스더 암기도표 / 민법 - 김광수 객관식 민법 / 사회보험법 - 이지영 에센스 / 경영학개론 - 최중락 2400 제

■ 면접 준비 과정

<2차 시험 (노동법만 작성)> [0기] - 선 이해: 기본서 진하게 읽기 & 사실관계 파악하기 - 후 암기: 김에스더 선생님 판서노트 수시로 보면서 판서노트에 있는 판례 전부 암기 [1기] - 그날 진도로 나간 판례 전부 암기(일일테스트 범위 아닌 것 포함) - 하루에 문제 3~5개씩 시간 재면서 답안 써보기(김에스더 선생님 베사연 사용) -> 답안을 잘 썼다고는 못 하겠지만 이때 시간 내에 완성하는 연습, 포섭 연습, 현출 연습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2기] 1차에 올인하느라 거의 3기를 시작할 시점에 시작했습니다. 강의 + 모의고사를 이틀에 하나씩(행쟁과 함께) 끝내느라 빠른 회독만이 답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을 하루에 회독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져서 3기 적응이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3기] - 무한회독 + 디테일 채우기에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 현출은 시간 부족으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 읽다보면 외워질 거라는 김에스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회독만 계속 했습니다. 정말 외워지더라고요 - 절반은 서브노트 나머지 절반은 핵서포(김에스더 선생님 자료)로 회독했습니다. (ex. 1일차 - 개별법 서브노트 + 집단법 핵서포 / 2일차 - 개별법 핵서포 + 집단법 서브노트 ... 반복) [기타] - 동그라미 세모 표시로 빠른 회독에 익숙해졌습니다. - 시험 한 달 전에 목차 별로 꼭 써야되는 내용 or 목차를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 하나씩 정해서 밝은 형광펜 표시를 하고 시험 2주 전부터는 그 부분만 빠르게 읽으며 회독했습니다. - 시간 부족으로 포섭은 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모두 서브노트에 단권화했습니다.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동차생이었기에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웠습니다. 1차 시험 공부 시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2차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어려워지긴 하였으나 1기 종강 이후 1차 시험 전까지 집중한다면 합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1기까지는 2차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고 2기부터 1차 시험 비중을 확 늘려 2차 시험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에서 혼자 공부해서 페이스를 지키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간단한 인증 스터디(착석 인증, 플래너 인증, 현출 인증)를 활용하여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0기, 1기 때 전과목을 진하게 암기해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동차를 노리는 경우 특A, A급 쟁점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도와 상관 없이 모든 주제를 암기해본 경험이 3기 때 회독 속도와 암기 속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생동차 생일 수록 자료량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의 자료를 따로 구하지 않았고 책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단권화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와 목차, 답안에 가점 포인트로 챙겨가고 싶은 내용 등을 포스트잇으로 단권화책에 추가해놓고 문제지와 모범답안을 다시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량은 줄이되 공부할 양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않고 범위 전체를 암기했습니다.